

금융위기속 CIS 진출기업 및 바이어 동향



CONTENTS

목 차

요 약 / 1

I. CIS 금융위기 현황 / 3

- | | |
|---|----------------|
| 3 | 1. CIS 금융위기 개관 |
| 4 | 2. 금융위기 현황 |

II. 현지기업 동향 / 8

- | |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8 | 1. 우리 진출기업 동향 개관 |
| 8 | 2. 국별 우리기업 동향 |
| 12 | 3. 현지진출 타국기업 및 현지기업 동향 |

III. 현지 바이어 동향 / 15

- | | |
|----|-----------------|
| 15 | 1. 바이어 동향 종합 |
| 15 | 2. 국별 바이어 접촉 결과 |

IV. 향후 전망 및 시사점 / 18

- | | |
|----|----------|
| 18 | 1. 향후 전망 |
| 19 | 2. 시사점 |

요 약

1. 금융위기 현황

□ 금융시장 불안이 심화됨

- (환율) 우크라이나, 러시아, 벨라루스의 통화가치 각각 60%, 46%, 44% 하락하면서 외채 상환부담이 가중되고, 유동성이 악화됨
- (주가) 러시아 RTS지수 정점이었던 2008년 5월 대비 2009년 3월 78% 하락했으나, 점차 회복세로 들어서고 있음
- (외채) 외환보유고대비 단기외채비중이 우크라이나 104%, 카자흐스탄 81%에 달함
- (국가신용등급) 우크라이나 CCC+, 러시아 BBB, 카자흐스탄 BBB-*로 강등

□ 실물경제로 파급

- (수출) 유가하락으로 석유가스 수출의존도가 높은 CIS국의 수출이 감소하여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감소
- (투자) CIS 국가로의 FDI 유입은 2008년 3분기부터 감소 추세
- (고용) 수출 및 내수부진으로 기업의 해고 증가

□ 경제성장률 대폭 하락

- CIS 경제 1,2위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2009년 성장률이 각각 -3%, -10%로 전망되면서 호황국면에서 침체국면으로 들어섬
- 2007년과 2008년에 고성장을 지속했던 아제르바이잔과 우즈베키스탄의 성장률이 2%대로 그칠 전망

2. 현지기업 동향

□ 수요감소, 금융위기로 인한 바이어의 결제지연, 환전통제 심화

- 자동차, 가전제품 분야의 판매 감소 두드러짐
 - 러시아, 우크라이나, 카자흐스탄 등의 자동차 판매, 가전 판매 급감
- 상대적으로 금융위기의 영향이 적은 우즈베키스탄은 환전통제 강화
 - 환전 소요기간이 길어져 바이어 대금지불이 연체됨에 따라 애로사항 발생

□ 현지기업, 자동차·가전·건설·금융 분야 투자 축소, 자원개발 분야 지속

- 자동차·가전·금융 분야의 구조조정 증가, 건설업체 건축 취소
 - Volkswagen(독일): 러시아내 생산·유통 통합 등 구조조정 단행
 - Fujitsu SIEMENS(일본·독일): 우즈베키스탄 내 사업축소 및 경영난 심화
- 자원개발 분야의 공동 탐사 및 R&D 투자는 지속됨
 - Kinross Gold Corporation(캐나다): 러시아 금광공동협약 체결
 - Foraco(프랑스): LUKoil사와 북러시아 다이아몬드 광산탐사 계약체결

3. 바이어 동향

□ 대금결제 지연으로 주문 감소 및 취소 증가

- 바이어들의 L/C 개설 및 신용대출 어려움
 - 대금지급 기한을 최대한 연장해주는 업체와의 계약을 선호
- 소비자 구매력 하락에 따른 수입수요 감소, 그러나 일부 틈새 품목은 매출증가 기대

4. 향후전망 및 시사점

□ 국가부도위기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

- EIU, IMF 전망 2009년도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이나, 2010년도에는 플러스로 돌아설 전망
- 모라토리움 학습효과로 사전 위기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완충망 역할
- 고용안정을 위한 정부지출 확대, 실업 수당 상향 조정 등 사회안전망 확보 노력

□ 현지 여건 및 변화에 대응한 전략적 접근 필요

- 현지 금융 및 자금 여건을 감안한 거래방식 및 협력모델 발굴
 - 루블화 결제 거래, 신용 공여 한도 확대, 수출대금 회수기간 연장 등
- CIS 시장의 문화특성을 감안한 접근 필요
- 현지 정책변화와 시장 트렌드를 파악한 마케팅 전략 필요
- 시장변화에 대응한 현지 생산체제 및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
- 원천 기술 도입, 산업협력 확대의 기회로 활용

I. CIS 금융위기 현황

1. CIS 금융위기 개관

□ CIS 주요국 금융위기 추이

◆ 러시아

- ✓ '08.7 국제유가 하락세 돌입, 메첼사¹⁾와 TNK-BP²⁾사태로 러시아 투자환경에 대한 국제금융가의 우려 표면화
- ✓ '08.8 그루지야 침공으로, 외국투자자들 러시아내 사업 안정성 재평가
- ✓ '08.9 세계금융위기 촉발로 국제자원가격이 폭락하자, 루블화 가치 및 주가 하락 가속화, 신용경색으로 금융권과 기업부실 표면화
- ✓ '08.12~'09.2 국제신용평가기관들 러시아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
※ 실업률 증가, 중산층 일부 빈곤층 전락, 일부 품목 수입관세율 인상 등

◆ 우크라이나

- ✓ '08.9 유동성 위기로 은행 및 기업도산 증가, 예금인출 사태, 주력 수출상품인 금속, 화학수출부진으로 무역적자 확대
- ✓ '08.11 IMF, 164억달러 대기성 차관 제공 결정
- ✓ '09.2 S&P사, 국가신용등급 B → CCC+로 하향(지급불능 가능성)

◆ 카자흐스탄

- ✓ '08.9 유동성 위기, 국제자원가격 급락으로 금융권 및 기업부실화
- ✓ '09.2 Fitch사, 국가신용등급 BBB- → BBB*로 하락, 탱게화 평가절하

◆ 벨라루스

- ✓ '09.1 IMF, 24억 6천만 달러 대기성 차관 제공
- ✓ '09.2 러시아, 20억 달러 만기 안정화 차관 공여

◆ 아르메니아 : '09.2 IMF, 5억 4천만 달러 대기성 차관 제공

◆ 아제르바이잔, 우즈베키스탄 : 경기위축, 수요 감소로 경제성장을 급락

- 1) 푸틴 러시아총리가 자국의 코크스용 석탄 및 철강업체인 메첼사가 철강제품 및 코크스용 석탄의 국내 가격을 수출가격보다 2배 높게 책정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정부조사를 지시하자 투자자들은 러시아 정부가 메첼사를 국유화하기 위한 수순으로 평가하여 메첼사 주가가 폭락함.
- 2) 영국의 BP사의 러시아합작사(BP 생산원유의 25% 담당)로 러시아정부는 영국인 최고경영자와 직원들의 비자갱신 거부, 산업스파이 혐의로 직원 체포, 시베리아 유전개발사업에 대한 수시 환경조사, 세무조사로 16억달러의 벌과금 부과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게 만들.

2. 금융위기 현황

□ 금융시장 불안 심화

- (환율) 미국발 금융위기 이전인 2008년 8월 대비 2009년 2월 통화가치는
우크라이나가 60%, 러시아 46%, 벨라루스 44% 하락
- 카자흐스탄은 텡게화 25% 평가절하 발표 이후 환율 급상승

[주요 CIS국 통화가치 변동]

국 가	통 화	환율상승률 (달러대비)(%)
러시아	루블	46
우크라이나	그리브나	60
카자흐스탄	텡게	25
벨라루스	벨라루스 루블	44
아제르바이잔	마나트	10
우즈베키스탄	숨	7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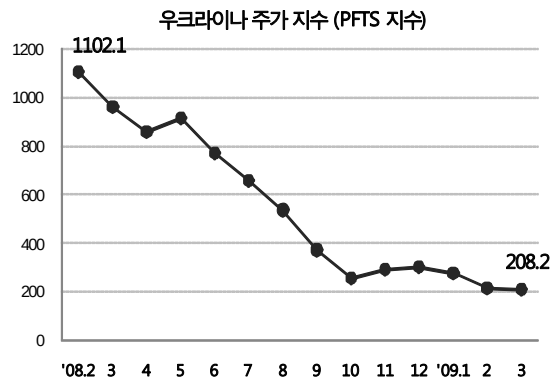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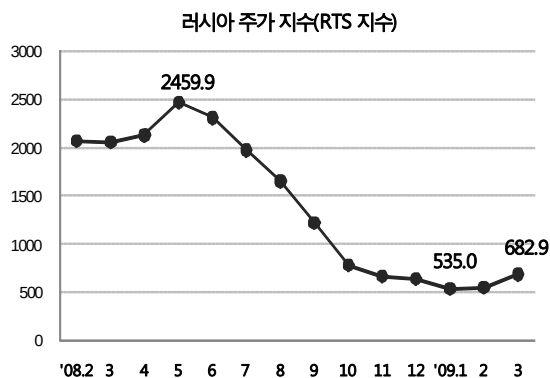
*주 : 1. 국가배열은 국별 GDP총액 순서

2. CIS 12개국 중 상기 6개국을 제외한 기타 6개국 GDP는 CIS 총 GDP의 5% 미만

자료원 : EIU(2009.3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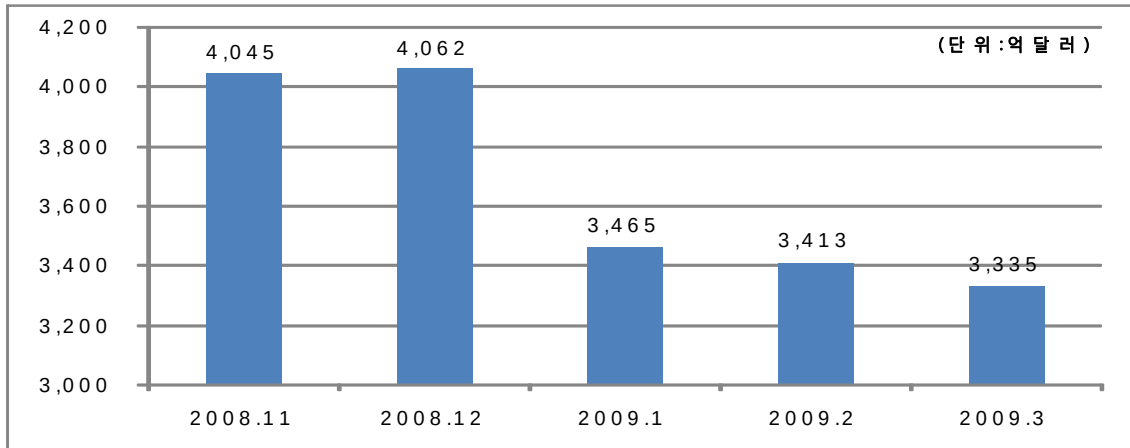
- (주가) 2009년 1월 기준 러시아 RTS지수는 정점이었던 2008년 5월 대비 78% 하락했다가 금년 3월들어 점차 회복세, 우크라이나 PFTS지수는 2008년도 정점이었던 1월 대비 77% 하락했다가 금년 4월 들어 소폭 회복 중

[러시아 · 우크라이나의 주가지수 변동추이]



- (외환보유고) 러시아의 외환보유고는 국제유가 하락, 루블화 방어 및 외국인 자본이탈 등으로 2008년 8월부터 6개월 연속 감소

[러시아 외환보유액 추이]



자료원: 러시아 중앙은행

- (신용부도스왑(CDS)³⁾ 프리미엄) 우크라이나 3,700bp로 세계 최고수준을 기록, 카자흐스탄 1,500bp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높음
- (외채) 외환보유고 대비 단기외채비중이 높아 외채상환 부담 가중
 - 우크라이나(104%), 카자흐스탄(81%), 러시아(28%) 순 (2009년 2월 기준)
 - * 연내 만기도래액: 우크라이나 10억달러, 카자흐스탄 201억달러
- (국가신용등급) 주요 신용평가기관들은 러시아, 우크라이나, 카자흐스탄 신용등급을 강등

[주요 CIS국 신용등급 현황]

국 가	날짜	평가기관	동향	
			등급	전망
러시아	2009.2.4	Fitch	BBB+ → BBB	Negative
우크라이나	2009.2.25	S&P	B → CCC+	Negative
카자흐스탄	2009.2.19	Fitch	BBB- → BBB-*	Negative

자료원 : 국제금융센터

3) CDS(Credit Default Swap) 신용부도스왑: 부도가 발생하여 채권이나 대출 원리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를 대비한 일종의 보험성격의 파생상품. 이때 지불하는 일정 수수료를 신용부도스왑 프리미엄이라고 하고, 기초자산의 신용위험이 커질수록 상승함.

□ 실물경제로 파급

- (수출) 유가하락으로 에너지분야 수출의존도가 높은 CIS국 수출감소
 - 러시아 우랄산 중질유 유가(배럴당)는 정점이었던 2008년 7월 대비 2009년 2월 70%이상 급락
 - 석유가스 수출의존도가 65%에 달하는 러시아의 수출이 약 35% 감소
 - 석유가스 수출의존도가 81.4%에 달하는 아제르바이잔의 수출이 약 50%감소
- (투자) 국가신용도하락, 국가위험도 증가, 소비심리 위축으로 투자 감소
 - 러시아의 FDI 유입액은 2007년(550억달러)에 비해 2008년(587억달러)에 증가했지만 2008년 3분기부터 감소세
 -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분야의 외국기업 차별 정책으로 투자위축 전망
 - 투자유입액이 감소하여 총 자본유입액중 차입용도 비중이 2008년 85.2%에 달함
- (고용) 수출 및 내수부진으로 산업생산이 마이너스대로 하락하면서 기업의 구조조정이 증가하고, 실업률이 증가
 - 실직과 자산 가치 감소로 상당수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함

[주요 CIS국 2009년 실업률 전망]

국 가	2008	2009
러시아	6.4	8.4
우크라이나	3.0	5.0
카자흐스탄	6.6	7.7
아제르바이잔	0.8	1.0
우즈베키스탄	1.0	1.1

자료원 : EIU(2009.4)

□ 금융 및 실물경제 위기로 성장률 대폭 하락 전망

- 마이너스 성장 전망: 러시아 -3%, 우크라이나 -10%
- 2007년과 2008년에 고성장을 지속했던 아제르바이잔과 우즈베키스탄의 성장률이 2%대로 그칠 전망
- 2009년 전망치는 최근 8개월('08.8월 전망시점과 '09.4월 전망시점) 사이에 우크라이나 15.8% 포인트, 러시아 9.8% 포인트 하락

[2009년 경제성장률 전망 및 하향조정치]

국 가	2007	2008	2009	2009년 전망치 하향폭*
러시아	8.1	5.6	-3.0	9.8
우크라이나	7.7	2.2	-10.0	15.8
카자흐스탄	8.5	3.2	-0.2	6.3
벨라루스	8.2	10.0	-1.0	5.5
아제르바이잔	25.0	10.8	2.5	7.0
우즈베키스탄	9.5	9.0	2.5	5.5

*주: 2008년 8월과 2009.4월에 전망한 국별 2009년 전망치 차이임
 자료원: EIU(2009.4)

□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일부 무역장벽 도입

- 러시아 정부, 26개 전략산업 선정하여 금융 및 세제지원 (대상기업 295개사)
 - 교통, 에너지, 자동차, 철강, 군수, 우주항공, 조선, 유통, 통신, 군수 등
- 러시아, 우크라이나 중심으로 자동차, 철강, 가전제품 등 관세 인상
 - 러시아 : 2009년 1월 12일 부로 자동차관세 인상(신차 25 → 30%, 중고차 25 → 35%), 국산차 구매 보조금 배정(4억 7,000만 달러)

러시아의 자동차 관세인상으로 바이어들의 수입 신차 인수가격 8~10% 인상 효과
 (1,600CC 실린더용량 장착차량 수입관세 720유로 → 2,400유로)

- 우크라이나 : 2009년 2월 20일부로 6개월 한시적으로 자동차관세 인상
 (10 → 25%, 추가 13%), 교통세 및 물품세 인상

II. 현지기업 동향

1. 우리 진출기업 동향 개관

☐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매출 감소

- 고가 내구소비재인 자동차, 가전 등의 판매 감소가 두드러짐
 - A사 : 러시아 2009년 2월 판매량 전년동월대비 54% 감소
 - A사, B사 : 우크라이나 2009년 1월 판매량 전년동월대비 53% 감소
 - C사 : 우크라이나, 카자흐스탄 2009년 1월 판매량 전년동월대비 30% 감소

☐ 미수금 증가로 사업 환경 악화

- 판매부진 및 현지 거래은행의 대출규정 강화가 원인
 - 러시아, 우크라이나, 카자흐스탄내 거의 모든 판매법인의 미수금 증가
- PF 지연, 건설 및 컨설팅 프로젝트 일부 중단 사례 증가

2. 국별 우리기업 동향

☐ 러시아

- ✓ 전반적인 매출 감소, 2009년 중 경기회복 가능성 낮음
- ✓ 일부 금융권은 중단했던 대출 재개

- (D사) 올해 매출 작년대비 30~40% 감소 (건설 및 건설자재)
 - 수출대금 결제가 지연되거나 못받는 경우 발생, 매출 증가보다 수출 대금 회수가 현안
 - 비용절감을 위해 파견직원수 축소 및 책임자를 상무에서 부장으로 하향 조정

- (E사) 가전 매출액 전년대비 약 40-50% 감소
 - 2008년 말 현지 인력 구조조정 및 30% 급여 삭감
 - 2009년 중에는 경기회복이 기대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
- (삼성전자, 현대자동차) 바이어/딜러들에게 가격할인 제공 중, 결제통화를 달러에서 루블화로 변경 검토 중
 - 삼성전자, 루블화 수출 검토 및 루블화 결제 활용 중
 - * 루블화결제 일부기업은 달러대비 원화 절하 폭이 커서 실질적으로 이익을 보는 경우도 있음
 - 현대자동차, 2월 판매량은 전년동월대비 54% 감소했지만, 수입차시장 점유율은 6.6%로 2% 상승
 - * 2008년 판매대수 총 19만 2,719대, 시장점유율 9.5%로 수입차 1위
 - *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건설이 차질없이 진행 중(공정률 40%), 하청업체들이 불황에도 일감이 있음을 고마워하여 협조를 잘하고 있음
- (우리은행) 중단했던 기업 대출 일부 재개

□ 우크라이나

- ✓ 유동성 악화로 해외 송금 및 대규모 인출 규제 강화, 소비자 대출 축소
- ✓ 현지화 가치 급락으로 바이어 대금지급 능력 감소, 미수금 문제 심각

- (F사 : 물류) 미수금 문제 해결에 곤란을 겪음
 - 이미 완료된 거래(D/A 조건)에 대해 현지 유력 자동차사가 해당 대금 약 300만 달러를 지불하지 못해 법적 소송 고려 중
- (C사) 가전제품 판매 작년대비 30% 미만
 - 2009년 사업계획 대폭 축소, 재고정리 및 현상유지, 긴축재정에 초점
 - 신규 매출 확대보다 대금수수 일자 조정 등 미수금 확보에 주력

- (A사, B사) 자동차 시장 축소로 2009년 1월 신차 판매량이 전년동월대비 53% 하락
 - 우크라이나의 자동차 추가관세 13% 인상 유지, 자동차 관련 교통세 및 물품세 인상으로 신차 판매에 어려움 가중될 것으로 전망
 - *저가 중국 자동차가 수입차 부문 시장점유율 1위, 저가 중심으로 재편
 - 현지 은행에 L/C 개설 요청했으나 해당액에 대한 예치 요구
 - 바이어가 대금 지급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거래은행에서 각종 규정을 예로 들어 미지급하는 사례 빈번
 - 자동차 할부금융으로 자동차 판매가 호조를 보였으나 신용경색으로 은행 대출문턱이 높아지면서 소비자들의 자동차 수요가 감소

□ 카자흐스탄

- ✓ 바이어 결제 지연 및 PF 지연으로 매출 감소 예상
- ✓ 신규품목 개발과 수입금지 대체품 틈새확보로 매출 증가 기대

- (C사) 카자흐스탄 전자제품시장 점유율 30%, 이중 휴대폰은 50%에 이르지만 바이어들의 결제 지연으로 매출이 10-20% 감소할 것으로 전망
- (G사) 컨설팅 프로젝트 거의 중단 상태
 - 2009년 상반기에 투자 진출을 자문했던 알마티 진출 한국 건설사들은 PF가 3개월 이상 지연되면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 50%이상 중단
- (F사 : 석유화학제품, 산업기계) 2008년 하반기부터 바이어들의 결제가 1개월 이상씩 지연
 - 바이어들의 결제능력이 저하되었지만, 신규품목 개발(석유화학제품, 산업기계) 및 신규바이어 발굴로 10-20% 가량의 매출 증가 기대
- (코카스라인) 현지 법규 변경으로 알루미늄 판넬 수입이 금지되어 대체품인 샌드위치 판넬 수요증가 예상
 - 현지 건설 프로젝트 진행 중인 한국기업(물류센터 시공사)과 선계약 추진

□ 우즈베키스탄

- ✓ 전반적인 경기위축으로 판매 감소, 환전통제 문제 심각
- ✓ 해외 근로자의 국내 송금액 감소, 소비자 감소로 수요 감소

- (H사) 화학제품의 환전 소요기간이 종전 2~3개월에서 금융위기 이후 6개월로 길어져 바이어의 지불 연체 발생
- (C사) 우즈베키스탄 출신 해외 근로자의 국내 송금액 감소, 소비자 소득감소로 전자제품 수요 감소 추세
 - 2009년 3월 기준 판매 전년동기대비 TV 30%, 백색가전 10-15% 감소
 - TV와 백색가전 완제품 수출은 환전지연으로 어렵기 때문에 우즈벡 국내 가전 제조업체를 통한 SKD 수출 준비 중

□ 아제르바이잔

- ✓ 건설 및 인프라 프로젝트는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
- ✓ 정부예산 삭감으로 인한 프로젝트 지연 우려

- (I사) 수처리 및 레저복합단지 건설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
- (J사) 도로설계 프로젝트, 정부예산 삭감으로 잠정연기 가능성 있음
- (K사) ITS 프로젝트를 현재까지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나, 예산 사정 악화 소문으로 향후 중도금 상환 연기가 있을까 우려

3. 현지진출 타국기업 및 현지기업 동향

- ✓ 전반적인 매출감소 추세, 자동차,가전,금융,건설 분야 사업축소사례 증가
- ✓ 자원 개발 및 일부 제조업 분야는 사업 확대

□ 사업축소 사례

○ 업종별 동향

- 전반적으로 경기위축에 따른 판매부진, 금융권 유동성 감소로 인한 자금 압박으로 경영난 심화
- 자동차 및 고가 가전생산·판매법인의 긴축경영, 구조조정 증가
- 상당수 CIS 진출 유럽기업들이 사업축소 또는 철수 중

○ 국가별 동향

- 러시아

기업명	내 용
Amtel-Vredestein	- 네덜란드 타이어 제조업체, 자회사에 자금지원 중단
Elcoteq	- 핀란드 가전생산업체, 3년전 1,500만 달러 투자로 핸드프리, ADSL모뎀, 전자회로기판 생산 - 2007년부터 적자발생, 경영난 심화로 공장폐쇄
Immoeast	- 오스트리아 부동산 개발업체, Eastern Property Holdings에 20% 지분매각 결정
Volkswagen	- 독일 자동차생산 및 유통업체, 생산·유통통합, 구조조정단행
Societe Generale	- 프랑스 은행, 사업확장을 중단할 가능성 커짐
Hitach Construction Machinery	- 일본 굴삭기 제조업체, 세계적인 판매급감으로 유압굴삭기 제조 공장 설립 연기
Parkridge Holdings	- 영국 건설업체, 예카테린부르크 창고시설 건축취소

자료원 : Vedomosti, RBC Daily, the Moscow Times, 모스크바 KBC

- 우크라이나

기업명	내 용
Euroset	- 러시아 모바일 소매업체, 350개 대리점 가운데 43개 폐점 - 판매부진 장기화로 대리점 임차료 50% 삭감목표로 협상중 * 영업부진은 흑해연안 지역이 가장 심함
UkrAvto	- 현지 자동차업체, 2009년 전년대비 40% 감산계획 - 긴축경영을 위해 폴란드 생산공장인 FSO 인력을 금년 6월 까지 650명(26%) 해고계획
우크르텔레콤	- 현지 정보통신기업, 해외출장 동결 등 각종 예산절감정책 시행 및 통신시설 구축 프로젝트 중단 * 경제위기로 이동통신사들의 예산과 입찰날짜가 미정상태

자료원 : 키예프 KBC

- 우즈베키스탄

기업명	내 용
Fujitsu SIEMENS	- 일본·독일 합작사, 노트북 및 데스크탑PC 판매가를 10%~15% 인하했지만 매출 10%이상 감소
Kyzylkumecement	- 현지 시멘트 업체, 2009년에 3,100만톤 생산, 50%수출계획 - 건설경기 침체 및 해외시장 수요감소로 목표달성 불투명

자료원 : 타슈켄트 KBC

□ 투자 및 사업확대 사례

○ 업종별 동향

- 금광, 석탄, 다이아몬드와 같은 자원개발 부문 사업확대 추세
* 러시아, 금융위기로 금값 급등 및 실업자 속출로 금 채굴 허용법안 검토 중
- CIS 국가내 자원개발 및 인프라 개발은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중단 사례 거의 없음

○ 국가별 동향

- 러시아

기업명	내용
Dentsu Inc	- 일본 광고기업, Smart Communications사와 JV 설립
Magna International	- 캐나다 자동차부품 생산업체, 현지 사업다각화계획 발표 - 2008년 12월 러시아 니즈니-노브고로드 소재 부품공장을 인수
Saint-Gobain	- 프랑스 유리용품 생산업체, Kamyshino Container Glassware Maker를 약 20억 루블에 인수합병
Kinross Gold Co	- 캐나다 금광업체, Polyus Zoloto사와 동시베리아탐사협약 체결
Mitsui& Co	- 일본 무역상사, Russia's United Industrial사와 석탄매장지 개발 프로젝트 공동연구협약 체결 (티바 공화국)
Foraco	- 프랑스업체, LUKoil사와 러시아북부지방의 다이아몬드 광산 탐사를 위해 약 1,390만 달러 계약 체결
Hochtief Development Russland	- 독일 건설사, 상트 페테르부르크에 약 1억 달러 상당의 개발 프로젝트 시행 예정 (A등급 비즈니스 센터 건설)
Coca-Cola	- 미국 음료업체, 3~5년내 인프라개발에 12억 달러 투자계획

자료원 : Vedomosti, RBC Daily, the Moscow Times

- 우크라이나

기업명	내용
Coca-Cola	- 미국 음료업체, 2008년 산도라사를 8,000만 달러에 인수
Finnish Ruuki	- 핀란드업체, 1,500만 유로 규모의 미니제철소 건설(키예프 인근)
Dyckerhoff Zement	- 독일 시멘트사, 증설위해 3억 유로 투자

자료원 : 키예프 KBC

- 우즈베키스탄

기업명	내용
MTS-Uzbekistan	- 러 MTS사 투자기업, 2008년 4분기 매출액 전분기대비 12%증가 - 신규 가입자수, 2008년 4분기에 60만명 증가(총가입자수 565만명) * 이동통신 신규서비스 및 저가체계 도입
UZ-Carlsberg	- 칼스버그사 합작사, 2007년 9월 Sarbast의 주식 75% 인수 - 2009년에 전년대비 40% 증산 계획

자료원 : 타슈켄트 KBC

III. 현지 바이어 동향

1. 바이어 동향 종합

☐ 대금결제 지연, 주문량 감소로 한국 수출기업에 영향

- 신용경색에 따른 금융권 유동성 감소로 L/C 개설 및 신용대출이 어려워져 대금결제가 지연

- 대금 지불 상황에 따라 주문량 감소 및 주문취소로 이어짐
- 바이어들은 대금지급 기한을 최대한 연장해주는 업체와의 계약 선호
- 소비자 구매력 하락에 따른 수입수요 감소도 원인
 - * CCTV등과 같은 보안장비류는 사회 불안 때문에 수요 증가 추세

2. 국별 바이어 접촉 결과

☐ 러시아

- ✓ L/C개설 및 장기 신용대출 어려워 결제 연장 요청 증가
- ✓ 주문량 감소 및 주문 취소 사례 발생

- (BM Group, Polyef, Baikaltexcom : 폴리에스터 섬유) 대금결제 연장 요청 증가, 은행대출을 받지 못한 일부 수요업체 주문 취소
 - 러시아 은행들은 중소기업 대출을 꺼림
- (Nanofilm : 자동차, 건축용 필름) 2~3개월 대금결제 지연 및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작년 4분기 대비 약 10% 감소
 - L/C 개설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개설이 쉽지 않음
 - * 일부 바이어들은 주문취소, 일부 유통업체는 대체 거래선 찾기 위해 노력 중

- (Mebedrev : 가구용 필름) 장기신용대출이 어려워 대금지불 기한 연장을 요청하고 있으나, 한국 수출업체들은 아직 동의하지 않고 있음
 - 일부 업체의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물량 50% 감소, 5개 생산라인 중 3개 라인 가동중지
- (Dozhd : 자동차 예비부품) 일부 대금결제 지연으로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이 작년 4분기 대비 약 30% 감소
 - 일부 러시아 기업은 선적물품이 러시아 세관에 도착할 때까지 대금 결제 지연 요청, 현재 관련 6개 한국기업 중 1개사만 상기 조건에 합의

□ 우크라이나

- ✓ 대금조건을 유리하게 제시한 업체로의 구매선 전환 추세
- ✓ 장기거래가 가능한 기존공급 업체 선호

- (Ivanov Alexander : 타이어) 대금지불을 최대한 연장해 주는 업체선호
 - 선적 120일후에 대금지불 조건을 제시하는 러시아업체 제품 구매
- (Velam : 메트리스 및 가정용 섬유 제조사) 가격조건보다 대금 지급기한을 최대한 연장해주는 조건 중시
 - 신규 공급업체를 찾기보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장기거래가 가능한 기존 공급 업체와의 협력관계 구축을 중시

□ 카자흐스탄

- ✓ 신용대출이 어려워 주문 지연

- (Ordamed : 의료기기) 최종 거래선은 확보되어있으나, 대출금리가 16%로 신용대출이 어려워 주문이 약 3개월가량 지연

□ 우즈베키스탄

- ✓ 국내 경기침체로 구매력 하락, 수입수요 감소 상황
- ✓ 가격 경쟁력을 갖춘 일부 틈새품목은 매출 증가 기대

- (KAR MOTERS : 자동차부품) 원화약세로 한국산 수입 증가했으나, 우즈베크 국내경기 위축으로 구매력이 하락, 자동차 부품수요 감소
- (MIRTEHNOPOLIMER, PVC) 제조업체들의 대금지불 능력 감소 및 6개월씩 걸리는 환전문제로 작년대비 약25% 수입 감소
- (VINLAD : CCTV) 한국에서의 수입은 2008년과 동일수준을 유지하거나, 신규 프로젝트 수요증가로 인해 10-20% 증가 예상
- (JUMAGUL : 섬유직물) 국내수요의 지속적 증가로 한국에서의 수입이 연간 약 15~20%씩 증가

□ 아제르바이잔

- ✓ 은행권의 신용축소로 전반적인 매출 감소
- ✓ 경기위축으로 상당수 프로젝트 중단

- (Kia Motors Azerbaijan : 자동차) 시중은행의 소비자 자동차 할부금융 중단으로, 2008년 대비 매출 50% 감소, 금년도 매출 감소예상
- (Baku Electronics : 가전제품) 주거은행의 신용대출 조건 강화와 선별적 여신 제공으로 2009년 1분기 매출 전년동기대비 30% 감소
- (Aztechnika : 건설중장비) 상당수 건설 프로젝트 중단으로 매출 감소가 거의 90%에 달함
 - 현지 은행의 리스금융은 이미 중단되었고, 제한적이거나 고객들에게 자체 파이낸싱 제공 방안을 검토 중

IV. 향후 전망 및 시사점

1. 향후 전망

□ 국가부도위기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

◆ 2009년도 CIS 경제는 극단까지는 가지 않고 4분기부터 소폭 회복될 전망

- 최근 국제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아가고, 국제유가가 배럴당 30달러대를 바닥으로 반등세를 보이고 있고, 국제금융기구, 위기 당사국의 대응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

◆ 2010년도에는 국별 성장률이 모두 플러스로 돌아설 전망

○ CIS 최대 경제대국인 러시아⁴⁾의 디폴트 가능성이 낮음

- 1998년 모라토리움 당시와 다르며 경제규모가 커지고, 경제 펀더멘탈이 비교적 양호하여 위기극복에 유리한 조건

* 외환보유액 3,839억 달러(리저브펀드 및 국부펀드의 외화자산 포함, '09.4.10현재)로 3개월 수입분(IMF의 경상거래 기준 적정 외환보유고) 731억달러의 5배 수준

* 총 2,000억 달러 규모의 국제금융패키지를 발표(GDP의 15% 규모)

- 러시아인들 대부분은 정부가 위기 극복 능력이 있다고 믿고 있으며, 정부는 이번 위기를 부실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개혁의 기회로 삼고 있음

* 에너지 및 금속부문에 과도하게 의존한 산업구조 개편, 세율인하, 위기극복 플랜 실행

- 경제위기 극복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변수는 국제유가 추이임

* 국제유가가 배럴당 연평균 70달러 이상을 유지할 경우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M&A 등을 통해 세계 경제에서 위상을 강화할 기회를 잡을 것임

○ 지난 모라토리움 학습효과로 사전 위기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완충망 역할

- 러시아정부는 공적자금인 안정기금을 준비금과 국부펀드로 양분하여 운영 중

* 준비금은 석유가스 수익이 적을 경우 국가의 채무 이행을 보조하기 위해 창설된 기금이며 자원 수출 수익금 변동과 인플레이션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킴

- 고용안정을 위한 정부지출 확대, 실업수당 상향 조정, 주택 공급 확대 등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해 노력

4) 러시아 인구는 CIS 총인구의 51%를 차지하고, GDP는 CIS 총GDP의 78% 차지

◆ EIU와 IMF의 2010년 CIS 국별 실질경제성장률 비교 (2009년 4월)

- EIU는 러시아, 카자흐스탄, 벨라루스는 IMF 보다 높게, 기타국은 낮게 전망
- EIU 국별 전망치(괄호안은 IMF 전망치)
 - 러시아 2.0% (0.5%), 우크라이나 1.0% (1.0%), 카자흐스탄 2.0% (1.5%),
 - 우즈베키스탄 3.5% (7.0%), 벨라루스 3.0%(1.6%), 아제르바이잔 4.5%(12.3%)

2. 시사점

□ 현지 금융 및 자금 여건을 감안한 거래방식 및 협력모델 발굴

- 삼성전자 등이 소규모 거래 시 일부 활용하고 있는 루블화 결제 방안도 보완적으로 검토
 - 외환은행은 2008년부터 루블화 결제 서비스 시작
 - * 삼성전자 제외한 타기업 이용실적 : '08년(2,252건, 3억 1,400만 루블), '09년 1~2월 (1,097건 7,700만 루블)
 - 러시아 기업, 바이어가 수입대금을 루블화로 러시아 은행에 지불하고, 한국 기업은 원화로 수출대금을 한국 은행에서 지급 받음
- 우즈베키스탄의 환전통제 문제는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한 산업은행(UZKDB)의 유잔스 L/C 거래를 활용함으로써 해결 가능
- 수출입은행의 CIS 금융기관에 대한 전대자금 신용한도 확대
 - 수출입은행과 러시아 현지은행의 전대자금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, 러시아은행의 신용대출조건 강화 및 유동성 부족으로 조건이 까다로워짐
 - 신용공여한도 확대를 통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CIS 바이어들의 한국상품 수입 기반 제공
- 장기 전략차원에서 신용 있는 바이어들에게 상품 선공급 후 수출대금을 일정 기간 이후 회수하는 방법을 통해 수출확대를 추진

- 현재 러시아 바이어들의 경우 시중은행의 대출조건 강화, 자금회전 어려움으로 인해 상당한 자금 압박을 겪고 있음
- 현지 바이어의 수입규모, 신용도 등을 고려, 재고물품 담보 자금 대출, 수출 대금 회수기간 연장 등

○ 수익성과 사업성이 충분한 현지 개발 프로젝트 선별적인 금융 지원

◆ 한국수출보험공사의 PF 성공 사례 <모스크바시 쓰레기 소각로 PF>

- 수보와 파트너은행이 모스크바 시정부를 대상으로 신용 제공을 하면, 형식적으로는 모스크바시에 대출해 주는 것이지만 대출금이 공사비로 시공사(우리기업)에 바로 지급됨
- 공사대금의 안정적인 결제가 보장되는 것이므로 프로젝트 참여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 듦
- 수보와 은행은 모스크바 시정부로부터 매년 원금과 이자, 프리미엄을 상환받게 됨

□ CIS시장(인구 2억 8천, 자원풍부)의 문화특성을 감안한 접근 필요

◆ 한국의 대 CIS 수출 및 투자 추이

- CIS 수출비중은 2000년 0.8%에서 2008년 3.2%로 증가, 수출액은 약 11배 증가
* 2008년 대CIS 수출중 대러시아 수출은 71.5% 차지
- 대CIS 투자건수는 2000년 29건에서 2008년 207건, 투자액은 5,995만 달러에서 6억 8,020억 달러로 약 11배 증가

- CIS는 투자리스크는 높지만, 잠재력과 수익성도 높은 시장이기 때문에 투자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기회를 잘 포착
 - 경쟁이 점차 일어나고 있으나, 아직은 진입장벽이 높아 먼저 진출 시 경쟁 기업에게 배타적으로 작용
 - * 세금, 통관 및 각종 제도의 복잡성, 폐쇄성으로 인한 정보 부족, 취약한 유통구조 등
- 제도의 불투명성과 문화특성에 따른 제도와 현실차이를 인식하고 인맥 관리의 중요성 인식

- 사람을 통한 중요 정보수집과 인맥관리가 시장개척의 중요 성공 포인트
이므로 현지어를 구사하는 우수 인력을 배치

○ 리스크 관리 강화

- 일부 기업등도 CIS 거래선의 대금결제 지연 금액규모가 커짐에 따라
추가 신용을 통한 매출 증가보다 수출대금 회수 및 자금회전의 원활화
도모 중
- 2009년 러시아 사업장애요인(Grant Thornton International 컨설팅사)
* 소비수요 감소(41%), 금융기관 기업대출 축소(18%), 소비대출 감소(12%), 전기료 등
유틸리티 비용 인상(3%)

□ 현지 정책변화와 시장 트렌드에 알맞은 현지 진출 및 마케팅전략 필요

- 현지국의 자국산업 육성 및 수출기업화, 전략산업 선정 등 정책변화 흐름을
파악하여, 현지국에 기여하면서 잠재가능성이 높은 분야 발굴
- 러시아정부는 에너지, 자동차, 교통, 철강, 통신, 유통 분야 등에서 전략적
육성기업 대상 선정, 특별 우대
- 전략산업 외국인투자 절차법에 따라 해당 기술분야의 러시아기업에 투자한
민간 외국투자자는 50%, 국영 외국투자자는 25%의 지분 소유 제한
* 세포기술, 나노, 생명공학, 수소,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, 정보 가공·저장·보호,
인공내비게이션시스템 개발, 합성물질, 세라믹, 폴리머가공기술, 환경 친화적인 천연자원
추출 기술 등
- “돌다리만 두들기다”가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계산된 위험을 감수하고,
수익성을 높이는 전략 필요
예) 1998년 러시아 모라토리움 당시 삼성전자, LG전자는 공격적으로 나섰지만,
일본 및 서구경쟁사들은 지나친 경계로 사업축소 및 철수
* 나눔 경영 및 문화마케팅 사회적 책임 공유, 공격적 마케팅으로 시장리더로 자리매김
→ 러시아인들의 신뢰를 확보, 2000년대 중반부터 러시아 국민브랜드로 선정

□ 현지 생산체제 구축 및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

- 수출만으로의 한계 극복, 신속한 시황 대응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
 - 러시아정부의 산업구조 고도화정책 추진의지가 강하고, 시장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자동차, 가전 등의 경우 현지생산 투자가 중요시됨
 - * 현지생산투자: 현대, 포드, GM, 르노, 토요타, 니산, 폴크스바겐, LG전자, 삼성전자 등
 - * 푸틴총리 “ 러시아에서 판매된 자동차의 80% 정도는 러시아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”
 - 러시아의 WTO가입이 성사될 경우,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시장으로 점차 변모
 - * 마케팅, 생산거점 및 유통망 구축을 위한 투자가 없을 경우 경쟁력 확보가 곤란
- 러시아에 사업 확장 중인 한국기업(예시)
 - LG화학, 가동 중단된 공장을 저가 매입하여 리모델링 준비 중
 - KT&G, 공장부지 매입을 확정짓고 공장건립 준비 중
 - 셀트리온, 러시아 남부지역 13,500헥타의 농지를 확보하여 바이오연료용 농작물 시범생산 준비 중
- 러시아 대기업 등과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확대
 - 국내대기업은 올리가르히 소유 대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추진
 - * Interros, Alfa Group, Renova Group등은 다양한 사업분야를 영위
 - * 지멘스 그룹과 Renova그룹과의 전략적 제휴 추진
 - 특히 건설부문등은 단독 진출 시 위험요소가 많아, 로컬기업과 합작 진출한 외국기업사례 증가(로컬기업의 네트워크 활용, 사업장벽타개)
- 러시아 대기업은 CIS 국가들의 자원개발 통신, 유통, 금융, 인프라 등에 적극 진출 중
 - 러시아 기업들은 CIS 현지사정에 정통하고 인적네트워크 보유로 강점 확보

□ 산업 협력을 위한 상생 추구의 기회로 활용

-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사업 발굴 (대형 프로젝트 수주 지원)
- 정부 공여자금을 활용한 패키지형 진출
 - 제조업, 전력, 도로, IT 등 주요 인프라 개발에 필요한 자금공여 등 금융 지원을 통한 수요확대 방안 모색

□ 러시아 원천기술 도입 확대의 기회로 활용

- 주요 전략 기술 분야 협력 강화
 - 기계, 소재, 에너지, 원자력, 우주항공 분야 협력 강화
 - * 티탄합금 및 초전도재료, 에너지 절약형 반응 및 분리공정 기술, 태양에너지 기술, 미래형 원자로, 위성탑재체 기술 등
- 러시아기술 도입 성공사례
 - 위니아만도 : 탱크냉방에 사용되던 ‘열전(熱電)소재’를 이용하여 냉장고 뒷부분의 압축기가 없는 김치냉장고 제작 가능
 - 티앤씨샤크 : 나노 다이아몬드 코팅 기초기술을 도입하여 Broach Cutter 상품화 성공(세계 2번째)
 - 에셀텍 : 레이저 취성재료 절단기술을 도입하여 세계 최초로 최신 7세대 유리 LCD 유리 레이저 절단기 개발

2009년 KOTRA 발간자료목록

● Global Issue Report

번 호	제 목	발간일자
09-001	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기회시장 틈새시장	2009.1
09-002	오바마 정부의 경제·통상정책 방향과 시사점	2009.1
09-003	주요국 경기부양책 및 시사점	2009.2
09-004	美 경기부양법인 분석 및 활용전략	2009.2
09-005	러시아 CIS 수출환경변화와 진출확대방안	2009.3
09-006	한-칠레 FTA 5주년 성과와 시사점	2009.4
09-007	2009 美 USTR 국별무역장벽보고서(NTE) - 주요내용 및 시사점 -	2009.4
09-008	미·중·일 그린뉴딜 정책	2009.4

● Global Business Report

번 호	제 목	발간일자
09-001	2009년 세계 자동차시장 미리보기	2009.2
09-002	중동의 5대 비즈니스 유망 분야	2009.2
09-003	한-호주, 뉴질랜드 BT산업 협력방안	2009.3
09-004	새롭게 바뀌는 일본의 수입 인증제도	2009.3
09-005	불황기 중국시장, 소비트렌드를 읽어라	2009.3
09-006	일본 소비재 유망상품 및 수출방안	2009.3
09-007	새롭게 주목받는 美 흑인시장	2009.3
09-008	아프리카 전력시장 ON - 전력산업 현황과 진출 방안	2009.3
09-009	중국 내수의 新 블루오션, 유망 2,3선 도시 소비 포인트	2009.3
09-010	세계 전자산업 및 시장의 재편과 우리기업에의 기회	2009.4
09-011	동남아 CDM 시장현황과 기회	2009.4
09-012	중동에 펼쳐지는 친환경 녹색도시 - 그린산업현황과 기회	2009.4

● KOTRA자료

번 호	제 목	발간일자
09-001	2009년 지역별 진출확대 전략	2009.1
09-002	해외 프로젝트 진출 연찬회	2009.1
09-003	해외 주요국 레저보트산업 조사	2009.1
09-004	2009년 지역별 수출유망상품	2009.2
09-005	2009 아세안 유망시장 진출전략	2009.2
09-006	2009 외국인 투자환경 만족도 조사	2009.3
09-007	러시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시장동향	2009.3
09-008	CEO・HR マネージャー向けの主要労働判例集 (2008年改訂版)	2009.3
09-009	중국 내수유통 경영실무 가이드	2009.4

● 설명회자료

번 호	제 목	발간일자
09-001	2009년 세계시장진출전략 설명회	2009.1
09-002	2009년 세계시장진출전략 비즈니스 포럼	2009.1
09-003	유럽 재생에너지시장 진출설명회	2009.1
09-004	한미 부품소재 글로벌 파트너링 설명회 및 상담회	2009.1
09-005	TRADE KOREA 2009 해외시장개척 설명회 및 상담회	2009.2
09-006	TRADE KOREA 2009 해외 마케팅 핸드북	2009.2
09-007	2009 아세안 유망시장 진출전략 설명회	2009.2
09-008	미-중-일 그린 비즈니스를 잡아라	2009.4
09-009	일본기업 부품소재 구매전략 설명회	2009.4

작성자

◆ 모스크바 KBC	장윤성 과장
◆ 블라디보스톡 KBC	박기원 차장
◆ 알마티 KBC	최진형 과장
◆ 바쿠 KBC	한창운 센터장
◆ 타슈켄트 KBC	이명구 센터장
◆ 노보시비르스크 KBC	채승완 센터장
◆ 키예프 KBC	김하민 과장
◆ 중아CIS팀	송혜숙, 이시영

Global Issue Report 09-008

금융위기속 CIS 진출기업 및 바이어 동향

발 행 인 | 조 환 익
발 행 처 | KOTRA
발 행 일 | 2009년 4월
주 소 |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
(우 137-749)
전 화 | 02) 3460-7114(대표)
홈페이지 | www.kotra.or.kr

Copyright © 2009 by KOTRA. All rights reserved.

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.

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
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.